

# 雜劇「서유기」 연구

— 캠벨의 영웅신화 관점에서\*

김광영\*\*

##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출발
    - (1) 영웅에의 소명과 소명 거부
    - (2) 초자연적인 조력
  - 2) 입문
    - (1) 시련의 길
    - (2) 여신과의 만남
  - 3) 귀환
    - (1) 귀환 관문의 통과, 혹은 일상 세계로의 복귀
    - (2) 두 세계의 스승
3. 결론

## 1. 서론

잡극 「서유기」는 원말 명초의 몽고족 극작가 楊景賢의 작품으로, 역사상 실존 인물인 당나라의 玄奘이 불경을 구하러 인도로 가는 西遊故事를 그 내용으로 하며, 吳承恩의 소설 「서유기」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극 중에는 주인공인 唐僧이 강물에 버려지는 출생담인 江流故事가 나타나 始祖神話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아울러 수많은 요괴들이 등장하여 신화적 색채로 충만되어

\* 본 연구는 2018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있다. 그리하여 극 중의 주인공 당승은 천신만고의 시련 끝에 불경을 가져온 일종의 문화영웅<sup>1)</sup>으로 묘사되는 등 영웅신화적 색채를 강하게 지닌다.

캠벨(Joseph Campbell. 1904-1987)은 미국 태생의 세계적인 비교신화학자로, 동서양 각국의 신화와 전설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융(Jung. Carl Gustav. 1875-1961)의 심층심리학 이론을 계승하여, 모든 신화에 적용될 수 있는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기본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원형신화<sup>2)</sup>라고 불렀다. 이러한 원형은 인류의 집단무의식에 기인하고 있으며, 원형은 하나의 틀로서 그 안에는 영웅, 탄생, 죽음, 부활, 신, 악마 등을 포함한다.

원형이론을 전제로 삼은 캠벨은 네덜란드계 프랑스 인류학자인 반, 쟈넵(A. Van Gennep. 1873-1959)의 통과의례에 주목하였다. 쟈넵이 인간으로서 꼭 겪어야 하는 출생과 결혼 및 장례 등의 의례를, 분리의례-전이의례-통합의례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자, 캠벨은 자신의 원형신화에서 이를 더욱 확대된 개념으로 파악하여 출발-입문-귀환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원형신화는 내용과 형식을 망라하는 동질성을 가지는데, 내용 면에서는 영웅과 같은 다양한 인물과 여러 상징들의 궁극적인 의미의 유사성을 보이고, 형식 면에서는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 죽음에 이르는 개인의 인생 여정의 축소판이라고 할 패턴의 동일성을 보인다.<sup>3)</sup> 그리하여 캠벨은 원형신화로서의 영웅 여정 서사의 패턴을 다음과 같이 총 17단계로 구분한다.

#### 1. 분리 혹은 출발

1) 모험에의 소명, 혹은 영웅 소명의 표적 2) 소명의 거부, 혹은 신으로부터의 우매한 도주 3) 초자연적인 조력, 즉 어느 수준까지의 모험에 도전한 사람에 대한 뜻밖의 도움 4) 첫 관문의 통과 5) 고래의 배, 혹은 밤의 영역으로의 여행

#### 2. 입문 (시련과 입문의 성공)

1) 시련의 길, 혹은 신들의 위협한 측면 2) 여신과의 만남, 혹은 다시 찾은 유아기의 행복 3) 유혹자로서의 여성, 오이디포스 고녀의 체득 4) 아버지와의 화

1) 주로 원시사회의 신화에 나오는 半神半人的인 존재로, 인간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식이나 기술을 맨 처음 가르쳐 주고, 제도나 관습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2) monomyth는 원형신화 혹은 원질신화라고 번역된다.

3) 김기홍, 「캠벨의 원질신화와 문화콘텐츠」, 『통일인문학』 66집, 2016.

해 5) 신격화 6) 궁극적인 흥의

### 3. 귀환

1) 귀환의 거부, 혹은 버림받은 세계 2) 불가사의한 도주, 혹은 프로메테우스의 도주 3) 외부로 부터의 원조 4) 귀환 관문의 통과, 혹은 일상 세계로의 복귀 5) 두 세계의 주인 6) 살기 위한 자유, 즉 궁극적인 흥의 성질과 기능<sup>4)</sup>

캠벨은 위에서 영웅신화의 여정을 17단계로 나누었지만, 본고에서는 이 중 핵심적인 단계만을 중심으로 잡극 『서유기』를 살피고자 한다. 캠벨에 의하면, ‘영웅이 치르는 신화적 모험의 표준궤도인 위의 원형신화에서, 영웅은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로 떠나고 여기에서 엄청난 세력과 만나며, 결국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영웅은 이 신비스러운 모험에서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얻어 현실세계로 돌아온다.’<sup>5)</sup>

잡극 『서유기』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국내에서는 잡극 『서유기』를 연구한 논문이 아직 보이지 않고, 다만 소설 『서유기』를 대상으로 캠벨의 영웅신화의 관점으로 연구한 논문<sup>6)</sup>이 보이며, 중국에서는 馬會의 논문이 있다.<sup>7)</sup> 이에 본고는 이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잡극 『서유기』에 충만한 영웅신화를 캠벨의 원형적 영웅신화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극 중의 영웅신화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4)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51-52쪽, 민음사, 1999.

5)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44-45쪽, 민음사, 1999.

6) 안혜진, 「영웅신화 원형으로 본 『서유기』의 삼장법사: 영웅의 제자리 찾기」, 『비교문학』 69집, 2016.

7) 馬會, 「雜劇『西遊記』之英雄之旅」, 赤峰學院學報, 2014年 10期.

## 2. 본론

### 1) 출발

#### (1) 영웅에의 소명과 소명거부

캠벨의 영웅신화 중 개시 부분에 해당되는 출발 부분은 통과 의례의 분리의례와 비슷한 것으로, 영웅이 모험처럼 힘든 소명을 받고 새로운 영역으로 출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캠벨에 의하면, 이러한 모험에의 소명은 자신의 주관적 의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운명이 영웅을 불렀고, 영웅의 영적 重心(무게 중심)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옮겨졌음을 암시하고 있다.<sup>8)</sup> 잡극 「서유기」의 주인공인 당승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극 중의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觀世音이 등장): ... 보아하니, 지금 西天 天竺에 『大藏金經』 5048卷이 있어서 중국으로 전하고 싶으나. 佛法을 밝히고 선전할 肉身으로서의 인간이 없구나. 지금 諸佛께서 의논하신 결과, 西天의 毘盧伽尊者로 하여금 중국 海州 弘農縣 陳光蕊 집안의 아들로 托生<sup>9)</sup>하여, 커서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 西天取經하여 佛法을 밝히도록 하였다. ....

(丹霞禪師 등장): 가져와 보아하니 훌륭한 어린아이구나. 섬뜩한 빛이 번쩍이고 특이한 향기가 내뿜도다. 안에는 금비녀 두 개와 血書 한 통이 있는데, 이렇게 써여있네: “殷氏의 혈서입니다. 이 애의 부친은 海州 弘農人이며, 姓은 陳이고 이름은 萇입니다. 관직을 洪州 知府를 제수받아,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길에, 돈을 주고 배를 빌려 劉洪이란 자를 강의 뱃사공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남편을 강물에 밀어 빠뜨리고는 자신이 洪州 知府라고 사칭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의 유복자가 있어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여 애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적놈은 애를 강에 버리라고 저를 꾀박합니다. 그리하여 금비녀 두 개와 혈서 한 통을 넣으니, 그대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세요. 이 애는 貞觀3년 10월 15일 子時 生입니다. 달리 이름이 없고 江流라고 부릅니다.”.....

(당승 등장): ..... 천자께서 金色 袈裟와 九環 錫杖을 하사하시고 삼장

8)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80쪽, 민음사, 1999.

9) 영혼이 다른 것의 몸에 깃들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

법사에 封하여 주시어, 저로 하여금 西天取經토록 하시니, 제 생각건대 제 목숨은 부처님과 하늘이 보우해 주실 겁니다. ……오늘 임금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登程에 나서야겠습니다.<sup>10)</sup>

위의 인용문은 잡극 『서유기』 제1본의 핵심 내용이다. 극의 주인공 당승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출생 때부터 악한에게 부친을 잃고, 또한 모친에 의해 부득이하게 강물에 버려지는 신비한 江流故事를 그의 출생담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승은 위에서와 같이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위에 의하면, 당승이 서천취경의 장도에 오르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었다. 곧 당승은 諸佛들이 결정한 소명을 받아들인 것이니, 이것은 캠펬이 지적한 것처럼 운명이 영웅을 불렀다. 특히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당승은 전생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과 공덕이 훌륭한 비로가존자였다. 그는 극 중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정신적인 仙藥이라고 할 수 있는 불경을 중국에 전래할 목적으로, 영웅적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으로 중국에 托生하였다. 그리하여 당승은 극 중에서 丹霞禪師의 도움으로 성장하여 악한에게 복수하고, 영웅적인 서천취경의 장도에 오른다. 이 때 극 중에서 천자는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당승의 서천취경을 위하여 당승에게 金色 袈裟와 九環 錫杖을 하사하고, 여러 개국공신과 수많은 百官들이 참여하는 성대하고 장엄한 환송식을 거행한다. 당승은 이렇듯 성대한 환송식을 받고, 諸佛들이 부여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온갖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미지의 영역으로 출발한다.

캠펬에 의하면, '신화적 여행의 첫 단계인 모험에의 소명은 언제나 변용의 신비, 완성되면 곧 죽음과 탄생에 이르는, 정신적 통과 의례 혹은 순간을 개막한다. 지금

10) (觀世音上, 云) …… 見今西天竺有《大藏金經》五千四十八卷, 欲傳東土, 爭奈無個肉身幻軀的真人闡揚. 如今諸佛議論, 着西天毗盧伽尊者托化于中国海州弘農縣陳光蕊家爲子, 長大出家爲僧, 往西天取經闡教. …… (丹霞)將來看, 好個孩兒. 寒光閃爍, 異香馥人. 內有金釵二股, 血書一封, 上寫道:“殷氏血書. 此子之父, 乃海州弘農人也, 姓陳名萼, 字光蕊. 官拜洪州知府. 携家之任, 買舟得江上劉洪者, 將夫推墮水中, 冒名作洪州知府. 有夫遺腹之子, 就任所生. 得满月, 賊人逼迫, 投之于江. 金釵二股, 血書一封. 仁者憐而救之. 此子貞觀三年十月十五日子時建生. 別無名字, 喚作江流. …… (唐僧云) ……賜金襴袈裟, 九環錫杖, 封三藏法師, 着往西天取經. 我想來, 小僧性命, 也是佛天相保. ……今日辭了天子, 便索登程去也 隋樹森編, 『元曲選外編』第2冊, 633-646쪽, 中華書局, 1987.

까지의 삶의 지평은 이제 너무 웃자라, 낡은 개념과 정서 패턴은 몸에 맞지 않는다. 비야흐로 또 하나의 문턱을 넘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sup>11)</sup> 그리하여 캠벨은 프로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영웅이 기존의 영역에서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출발할 때 불안함이 생기는 것을 지적하였다. 곧 '프로이트는, 불안한 순간은 어머니로부터 분리될 때의 고통(탄생하는 순간의 숨이 막히고, 피가 응어리지는 등의)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거꾸로 말하면, 분리와 탄생의 순간은 불안을 야기시킨다.'<sup>12)</sup>라고 하였다. 이렇듯 앞으로 영웅에게 닥칠 수많은 시련을 예감하는 불안은 현재 영역에서의 분리로부터 생겨난다. 이러한 점은 잡극 「서유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승은 西天의 비로가존자로부터 분리되어 고통으로 가득찬 인간 세계에 托生하였고, 모친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강물에 버려졌으며, 단하선사로부터 분리되면서 험난한 서천취경의 장도에 올라야만 했다.

그런데 캠벨에 의하면, 영웅은 종종 운명적 소명을 거부하기도 하니, '현실생활에서는 자주, 신화나 민간 전승에서도 드물지 않게 소명에 응하지 않는, 조금은 답답한 경우를 우리는 만난다. 다른 데 주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명에 응하지 못하는 것이다.'<sup>13)</sup> 잡극 「서유기」 중에도 이러한 소명거부가 보인다. 당승의 조력자이자 개별적 영웅인 取經團의 孫行者나 豬八戒 및 沙和尚은 모두 처음에는 취경단에 가입하여 서천취경하라는 소명을 거부한다. 극 중 손행자는 花果山에 억눌려 있다가 당승에 의해 구출되자, 도리어 당승을 먹으려 했다가 緊箍兒의呪文에 의한 고통을 당하고서 비로소 취경단에 합류하였다. 사회상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당승을 먹으려 했다가 손행자의 협박에 의해 항복하여 취경단에 가입했고, 저팔계 역시 격렬하게 투쟁하다가 二郎神과 細犬의 위세에 놀려 비로소 취경단에 합류하였다.

## (2) 초자연적인 조력

운명적인 소명을 받고 세계를 변혁할 출발에 나선 영웅은 자신의 힘만으로 소명

11)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72쪽, 민음사, 1999.

12)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73쪽, 민음사, 1999.

13)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81쪽, 민음사, 1999.

을 완수하지 못한다. 캠벨에 의하면, 영웅의 운명적인 소명에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조력자가 등장한다. 곧 '소명을 거부하지 않은 모험 당사자는 영웅적인 편력 도중 첫 번째 보호자를 만난다. 노파나 노인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 보호자는 모험 당사자가 곧 만나게 되는 용(극복 대상)과 맞설 護符를 준다. 고급신화에 서는 이 역할을 맡은 조력자는 스승, 나룻배 사공, 영혼을 내세로 안내하는 안내자로 발전한다.'<sup>14)</sup> 잡극 『서유기』에서도 당승의 취경단이 시련을 당하거나 큰 재난에 당했을 때 캠벨이 말한 여러 조력자가 등장한다. 그러면 극 중의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관음이 揭帝<sup>15)</sup>를 데리고 등장): 저는 唐僧의 西遊를 위하여 옥황상제께 아뢰어, 十方保官을 보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海外의 蓬萊三島에 모였는데, 第一보관은 저이고, 第二보관은 李天王<sup>16)</sup>이며, 第三보관은 那吒三太子<sup>17)</sup>, 第四보관은 灌口二郎<sup>18)</sup>, 第五보관은 九曜星辰<sup>19)</sup>, 第六보관은 華光天王<sup>20)</sup>, 第七보관은 木叉行者<sup>21)</sup>, 第八보관은 韋馱天尊<sup>22)</sup>, 第九보관은 火龍太子<sup>23)</sup>, 第十보관은 大權修利<sup>24)</sup>로 모두 당승을 보호하여 무사하게 등정토록 한다.<sup>25)</sup>

위의 인용문은 제2본 제8齣 '華光署保'의 개시 부분으로, 당승의 안전한 서천취경을 위하여 관세음이 옥황상제에게 진언하여 열 명의 조력자를 파견토록 한 것이

14)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93-97쪽, 민음사, 1999.

15) 佛法 護護神 중의 하나.

16) 도교의 호법신, 손에 탑을 들고 있어서 托塔李天王이라고도 부른다.

17) 도교의 호법신. 李天王的 아들.

18) 민간에서 水理와 農耕에 능한 신화적 인물.

19) 九曜는 북두칠성과 이를 보좌하는 두 별을 가리키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재한다.

20) 민간전설과 도교 중의 신선.

21) 관세음의 제자.

22) 본래 힌두교의 軍神이었으나 후에 불교의 호법신이 됨.

23) 불을 내뿜는 火龍의 아들로 불교의 호법신.

24) 인도 阿育王(아소카왕)의 아들로 호법신.

25) (觀音引揭帝上, 云)老僧爲唐僧西游, 奏過玉帝, 差十方保官, 都聚于海外蓬萊三島. 第一個保官是老僧, 第二個保官李天王, 第三個保官那吒三太子, 第四個保官灌口二郎, 第五個保官九曜星辰, 第六個保官華光天王, 第七個保官木叉行者, 第八個保官韋馱天尊, 第九個保官火龍太子, 第十個保官回來大權修利, 都保唐僧, 沿路舞事. 隨樹森編, 『元曲選外編』, 第2冊, 652쪽, 中華書局, 1987.

다. 극 중 서천취경의 소명을 부여받은 당승은 이후 여러 시련과 재난을 당하는데, 결국 이들 초자연적인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소명을 완수한다. 그런데 이들 조력자들의 구성은 조금 특이하다. 곧 이들 조력자에는 민간신화에 등장하는 二郎神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의 여러 神佛들이 결합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극 중에서는 당승이 요괴에게 두 번이나 잡혀가는 재난을 당하는데, 이때 불교의 최고신인 世尊佛이 초자연적인 조력자로 등장하여 당승을 재난에서 구출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잡극 「서유기」의 당승은 도교와 불교의 최고신인 옥황상제와 세존불 및 여러 神佛과 같은 초자연적 조력자의 보호 아래 서천취경의 소명을 완수하였다.

## 2) 입문

### (1) 시련의 길

영웅 여정의 단계에서 입문은 통과의례의 전이의례와 비슷한 것으로, 전체 여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캠벨에 의하면, '일단 관문을 통과한 영웅은 기묘할 정도로 유동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이루어진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영웅은 이곳에서 거둬지는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남지 않으면 안된다. 신화와 모험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루는 부분도 바로 이 국면이다. 이 국면은, 기적적인 시험과 시련을 다룬 세계의 문학을 창출해 왔다. 영웅은 거둬지는 데 필요한 충고와 호부(액막이), 그리고 이 영역에 이르기 전에 만났던 초자연적인 조력자와 밀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sup>26)</sup> 영웅 여정의 전체 단계에서 영웅의 파란만장한 시련과 재난이 펼쳐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다.

잡극 「서유기」에서도 주인공인 당승의 본격적인 시련과 재난이 이 단계에서 시작된다. 다만 잡극 「서유기」가 원잡극 중 가장 장편인 6본 24척으로 구성되었지만, 소설 「서유기」에 비해서는 편폭이 훨씬 제한적이다. 그리하여 소설 「서유기」에는 81難이 나타나지만, 잡극 「서유기」에는 일곱 가지의 재난이 극 중에 보인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인공 당승의 江流故事라는 재난은 이미 출발 부분에서 나타나

26)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128쪽, 민음사, 1999.

서, 당승이 겪게 되는 재난은 실제로는 여섯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련은 제3본 제11척 ‘行者除妖’에서 당승과 손행자 및 사화상의 취경단이 黃風山 근처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발생하였다. 곧 황풍산의 劉太公은 자신의 딸이 妖魔에게 붙잡혀간 사실을 취경단에게 울면서 구출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손행자와 사화상은 妖魔인 銀額將軍과 싸워 그를 죽이고, 유태공의 잡혀간 딸을 데려왔다. 극 중 첫 번째의 시련은 비교적 쉬운 시련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었으며, 이후의 시련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두 번째 시련은 깊은 산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극 중의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당승): 홀룡하구나! 홀룡하구나! 깊은 산 속 누구 집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구나. 조금 지나 어두워지면 豺狼과 毒蟲이 이 애의 목숨을 해치지 않겠는가? 출가인이 죽을 것을 보고 구해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戒行을 파괴하는 것이리라. 행자야! 내 대신에 업어라! 앞에 人家가 있으니, 내력을 알아보고 그 애 집에 보내주면 좋은 일이지.

(행자가 등장): 사부님! 산의 숲 속에는 妖怪가 매우 많으니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세요!

(당승): 너 이놈의 원숭이! 내 말을 또 안 들어. 반드시 그 애를 업어라!

(행자): 사부님! 먼저 가십시오. (업혀지지 않는 동작을 한다): 내 일찍이 花果山에 놀러 있다가도 몸을 솟구쳐 뛰어 나왔는데, 크고 작은 요술 방망이로도 업을 수 없으니, 분명히 요괴구나. 너 내 戒刀맛을 보고, 계곡으로 떨어지도록 해주마. (계곡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을 한다)

(沙和尚이 황급히 등장): 師兄! 큰일 났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사부님이 잡혀갔어요. 그 애가 무슨 요괴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행자): 火龍아, 우리 셋이 관음불께 가자. (퇴장)

(관음불이 등장): 老僧의 눈에 당승이 재난을 당하고 손오공이 오는 것이 보이구나. 이 동굴의 妖魔는 무슨 괴물인지, 노승은 본 모습을 보지 못했도다. 손오공이 오면, 같이 世尊佛께 여쭙러 가야겠도다. (퇴장) ……

(세존불): 그 애가 요괴인지는 모르지만, 그 애 엄마는 내 밑에서 天神으로 있도다. 佛法에 아직 귀의하지 않았으며, 鬼子母라고 한다. 그녀의 어린아이는 愛奴兒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미 揭帝<sup>27)</sup>를 파견하여 잡아다가 깊은 바위나 큰 언덕 가운데 두도록 시켰으니, 그 애 엄마가 곧 올 것이다.

27) 佛法을 수호하는 護法神의 하나.

揭帝가 그 애를 항복시키지 못할까 두려우니, 老僧의鉢盂를 가지고 오너  
라. 28)

위의 인용문은 제3본 제12칙 '鬼母皈依'에서 극 중의 영웅인 당승이 도리어 요괴인 홍해아에 의해 납치되는 재난을 보여주고 있다. 극 중에서 당승 등의 취경단이 깊은 산 속을 가고 있던 중에, 紅孩兒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혼자 울고 있자, 당승은 자비심을 내어 손행자에게 홍해아를 업고 집에 데려다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홍해아는 본시 요괴여서 손행자가 아무리 업으려고 해도 업혀지지 않았으며, 이 와중에 당승은 홍해아에게 납치되는 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에 손행자와 사회상은 사부인 당승을 구출하려고 했으나, 홍해아의神通력이 강하여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손행자 등은 부득이하게 초자연적인 조력자인 觀音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관음은 다시 불교의 최고신인 世尊佛에게 부탁해서 당승을 재난에서 구출했다. 특히 이때 세존불은 홍해아를 스님들의 食器인鉢盂 속에 가두었으며, 홍해아의 모친인 鬼子母는 아들을 구하려 왔다가 전투에서 지고, 결국은 불교에 귀의하였다.

극 중의 세 번째 시련은 黑風山의 黑風洞에서 裴太公의 딸인 海棠을 납치하여 살고 있던 豬八戒를 항복시켜 취경단에 합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극 중에서 저팔계는神通력이 대단하여, 쉽게 변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손행자는 이러한 저팔계를 잡고자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와중에 자신의 사부인 당승이 저팔계에 의해 납치되는 재난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당승을 구출하

28) (唐僧云)善哉!善哉!深山中誰家個小孩兒,迷踪失路?少刻晚來,豺狼毒蟲,不壞了這孩兒性命?出家人見死不救,當破戒行.行者,與我馱着,前面有人家,教根問,送還他家請賞,也是好事.(行者云)師父,山林中妖怪極多,不要多管.(唐僧云)爾這個胡孫,又不聽我說.定要你背他.(行者云)師父先行.(做背不起科)(云)我曾壓在花果山,聳身一跳,尚出來了.棒槌大的小的,背他不起,這必是妖怪.教爾嘗我一戒刀,就砍下洞裏去;(做丟下洞科,沙和尚慌上,云)師兄禍事,吃那小孩兒拿將師父去了.知他是何妖怪?(行者云)火龍,俺三人見觀音佛去來.(下)(觀音上,云)老僧目中,見唐僧有難.孫悟空來也.這一洞妖魔,是何怪物?老僧正不見本來面目,待孫悟空來,同往問世尊佛去.(下)……(佛云)不知此非妖怪.這婦人我收在座下,作諸天的.緣法未到,謂之鬼子母,他的小孩兒,喚做愛奴兒.我已差揭帝去拿他,在个幽岩大澤之中,即日便到.恐揭帝降不下他,將老僧鉢盂去,蓋將來.隨樹森編,『元曲選外編』第2冊,662쪽,中華書局,1987.

기 위하여 二郎神까지 동원하였으나 전투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저팔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細犬을 동원하여 저팔계를 항복시키고, 저팔계가 당승의 자비심으로 佛法에 귀의하기길 원하며 취경단에 합류하였다.

극 중의 네 번째 시련은 당승이 여인들만 사는 女人國에 도착하여 그 곳의 여왕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으면서 겪는 것인데, 이 네 번째 시련은 다음 節의 ‘여신과의 만남’부분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극 중의 다섯 번째 시련은 당승을 비롯한 영웅적인 취경단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후 폭염으로 이글거리는 火焰山을 통과할 때의 시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鐵扇公主 등장): 저는 철선공주입니다. …… 제 부채 한 자루는 무게가 1,000여 근이고, 부채에는 24개의 부채살이 있는데, 24절기에 맞춘 것입니다. 이러한 兵器는 三界<sup>29)</sup>의 聖賢도 測定하지 못합니다. 저는 홀로 南方 화염산을 지키고 있는데, 만일 이 부채가 없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부채지요. ……

(손행자가 등장하여 소리를 지른다. 洞窟에서 小鬼가 나온다) (손행자): 小鬼야! 너희 공주님께 전해라. 大唐 三藏國師의 摩訶羅<sup>30)</sup>같이 사랑스럽고 훌륭한 제자 손오공이 뵈고자 하니, 法寶인 부채를 빌려주어 화염산을 통과하게 해주라고 해라. ……

(철선공주가 손행자와 싸운다.) (철선공주가 패배하고 도망가며): 이놈의 원숭이가 신통력이 대단하네. 내가 이길 수 없으니, 범보인 부채를 가져와라! …… (부채질을 한다) (손행자가 곤두박질치며 퇴장)……

(손행자): 그 여자가 부채질 하니 내 몸이 휘익 하늘로 날려가 버리네. ……

(觀音이 등장): 저는 관세음입니다. 唐僧이 화염산을 통과하지 못하여 손오공이 사정을 알리러 왔네요. 제가 雷公, 電母, 風伯, 雨師, 箕水豹, 壁水獺, 參水猿<sup>31)</sup> 등 水部의 신통한 이들을 파견하겠습니다. 물이 불을 이길 수 있으니, 이 화염산의 해로움을 없애야지요.<sup>32)</sup>

29) 불교에서 衆生이 輪回하는 欲界, 色界, 無色界를 가리킨다.

30) 음력 7월7일 부처님께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바치는 작은 인형. 여기서는 남에게 사랑을 받는 인물을 비유한다.

31) 기수표, 벽수유, 삼수원은 모두 중국 고대신화 중 28 星宿의 하나.

32) (鐵扇公主上, 云)妾身鐵扇公主是也. …… 我一柄扇子, 重一千餘斤, 上有二十四骨, 按二十四氣, 此般兵器, 三界聖賢, 不可量度. 單鎮南方火焰山, 若無此扇, 諸人不可過去. 好扇子呵. …… (行者上, 叫科)(洞裏小鬼做出科)(行者云)小鬼, 對恁公主说, 大唐三藏國師摩訶羅俊徒

위의 인용문은 잡극 「서유기」 제19척 '鐵扇兇威'와 제20척 '水部滅火'의 일부이다. 극 중 여인국에서의 性的인 시련을 간신히 해결하고 떠난 취경단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道士인 採藥仙人의 도움으로 영웅적인 장정을 계속하며, 이후 폭염으로 유명한 화염산을 통과해야 했다. 그런데 화염산은 너무 뜨거워 더위를 식혀야만 통과할 수 있는데, 철선공주의 24골 부채만이 더위를 식힐 수 있다. 그러나 극 중에서 철선공주는 손행자가 무례하다고 하여 부채를 빌려주지 않자, 결국 철선공주와 손행자는 대결을 하였다. 그리하여 손행자의 실패로 철선공주가 부채질을 한 번 하자, 손행자는 부채의 위력에 곤두박질치며 허공으로 날려가 버렸다. 이렇듯 취경단이 화염산에서 철선공주에 의해 또 시련에 부딪치자, 위에서와 같이 손행자는 초자연적인 조력자인 觀音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관음은 水部인 雷公, 電母 風伯, 雨師 등의 신통한 무리들을 파견하여 물로써 불을 이겨내고, 마침내 취경단은 시련을 이기고 영웅적인 장정을 계속 이어간다.

극 중 취경단의 마지막 시련은 서천취경의 목적지인 天竺國에 도착하고 나서 발생하며, 앞의 다섯 시련과 비교하면 다소 특이한 것이다. 곧 당승 등의 취경단은 羅漢들이 많이 거주하는 佛國인 中天竺國에 도착하여 取經하러 가던 도중에, 길거리에서 胡餅<sup>33)</sup>을 파는 가난한 老婆인 貧婆를 만나 뜻밖의 시련에 부딪친다. 극 중에서 손행자는 貧婆와 『金剛經』에 나오는 '過去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sup>34)</sup>이라는 유명한 구절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빈파가 손행자에게 당신의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중의 어느 마음에 點을 찍느냐는 '點心'의 질문을 하자, 손행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히는 시련을 당한다. 물론 여기서의

弟孫悟空來求見, 借法寶, 過火焰山咱. …… (做戰科)(公主做敗走科, 云)這胡孫神通廣大, 我贏他不得. 將法寶來. …… (做扇科)(行者做一筋斗下) …… )(行者上, 云)吃這婆娘一扇子, 扇得我滴溜溜半空中. …… (觀音上, 云)老僧觀世音是也. 唐僧過不得火焰山, 孫悟空來告. 我差雷公、電母、風伯、雨師, 箕水豹、壁水獋、參水猿等水部神通. 水能滅火, 就除此火山之害.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2冊, 682-684쪽, 中華書局, 1987.

33) 밀가루를 반죽하여 찰개를 뿌려 구운 빵의 일종.

34) 과거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며, 현재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마음은 고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므로 결코 잡을 수 없다. 지나간 마음도, 지금 마음도, 앞으로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시간 속에서 어제·오늘·내일로 분리된 불변의 마음은 없기 때문이다

시련은 보기에 따라서는 시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취경단의 서천 취경 과정을 佛法의 경전을 가지고 귀국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취경단 개개인 이 자신의 내면에 담긴 佛性을 깨달아가는 수행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손행자가 극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어도 아직도 내면의 불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면에서 상당한 시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만일 앞의 다섯 가지 시련이 외적 시련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시련은 내적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국의 불교사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로, 당나라 고승인 德山禪師(782-865)의 '點心' 이야기와 연관된 것인데,<sup>35)</sup> 잡극 『서유기』의 작자는 이 고사를 극의 마지막 갈등 구조로 안배하였다. 극 중에서 손행자의 이러한 내적 시련은 당승이 손행자와 함께 빈파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해결되는데, 당승은 빈파에게 佛法과 佛性을 터득한 자신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임으로써 마지막 시련을 극복한다.

## (2) 여신과의 만남

캠벨의 영웅신화 발전단계에 의하면, 입문은 영웅 여정의 핵심이며 많은 시련을 동반하는데, 캠벨은 '여신과의 만남' 그리고 '유혹자로서의 여성'이라는 두 단계를 따로 '시련의 길' 단계와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크게 보면 여성과 연관된 이 단계들도 '시련의 길'이라는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영웅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이전과는 다른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도중에 겪게 되는 '여신과의 만남'이란 고통 또한 시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캠벨에 의하면, '모든 장애물이 극복되고 도깨비가 퇴치되었을 때 영웅이 치르는 마지막 모험은 승리한 영웅과 세계의 여왕인 여신과의 신비스러운 婚禮로 표상된다. 이로써

35) 여기에서의 '點心'은 마음에 점을 찍듯이 간단하게 먹는 음식을 가리킨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덕산은 『금강경』에 능통하였는데, 남쪽의 선사를 만나러 가다가 떡을 파는 노파를 만났다. 덕산이 떡을 하나 팔라고 하자, 노파는 "그러면 제가 『금강경』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내어서 스님이 맞추시면 떡을 그냥 드리지요"라고 했다. 이에 스님이 좋다고 하자 노파는 『금강경』에 "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란 구절이 있는데, 그렇다면 스님은 어느 마음에 떡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금강경』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스님도 끝내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한다.

영웅은 天底, 天頂 혹은 땅끝, 우주의 중심점, 신전의 성소, 혹은 마음 속의 가장 어두운 방 속에서 위기를 맞는다.<sup>36)</sup> 그러면 잡극 「서유기」의 원문을 중심으로 네 번째 시련을 살펴보자.

(女人國 여왕 등장): 저는 여인국 여왕입니다. 저희 나라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노래한다) ……

【混江龍】 …… 평생 남자 모습 몰라서/ 그림을 봐도 욕정이 움직이고/ 흠인형을 봐도 마음이 슬퍼지네. ……

(女王이 당승을 끌어당긴다): 이 正殿에서는 이야기 할 곳이 못되니, 우리 둘이 後殿으로 갑시다.

(당승): 손오공아! 나를 구해줘! (퇴장)

(손오공): 저도 어찌할 수 없어요. ……

(여왕이 당승을 끌어당기며): 당승! 저랑 당신이랑 부부가 됩시다! 당신은 오늘 國王이 되는 것이 어떤지요? ……(여왕이 당승을 잡고 엮치락뒤치락 한다)

(당승): 누가 나 좀 구해줘!

(韋馱尊天<sup>37)</sup>이 등장): 저는 위태존천입니다. 관음보살의 명령을 받들어 당승을 구하러 가야지요. 발칙한 것이 어찌 감히 내 사부님의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다니!

(여왕): 너는 어떤 놈인데 내 침실로 들어와? ……

(위태존천): 만일 사부님을 안 놓아주면 몽둥이로 박살낼 거야.(여왕이 손을 놓아준다)……

(당승): 행자야! 오늘 위태존천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거의 내 몸이 망가졌을 거야.<sup>38)</sup>

36)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144쪽, 민음사, 1999.

37) 불교의 호법신 중의 하나.

38) (女人國王上, 云)女童女人國王. 俺一國無男子, …… (唱) 【混江龍】 …… 平生不識男兒像. 見一幅畫來的也情動, 見一個泥塑的也心傷. …… (女王做扯唐僧科)這正殿上不是說話的去處, 俺兩個後殿裏去來. (唐僧云)孫悟空救我. (下)(行者云)我自也顧不得. …… (女王扯唐僧上, 云)唐僧, 我和爾成其夫婦, 爾則今日就做國王, 如何? …… (女王捉番唐僧科)(唐僧云)誰救貧僧也. (韋馱尊天上, 云)某韋馱尊天是也. 奉觀音法旨, 去救唐僧走一遭. 潑賤人, 怎敢毀吾師法體?(女王云)爾是何人, 直走到臥房裏來? …… . (韋云)若不送師父出來, 一杵打爾做泥塵. (女王做放手科)……(唐僧云)行者, 貧僧若非尊神護持, 幾毀法體.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2冊, 676-679쪽, 中華書局, 1987.

위의 인용문은 제5본 제17책 '女王逼配'의 부분으로, 남자를 몰랐던 여인국의 여왕이 당승을 보고서 유혹하고 욕정을 발동시켜, 당승이 시련에 봉착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캠벨에 의하면 이러한 성적 시련은 주로 마지막 시련의 단계에서 나타나지만, 잡극 『서유기』에서는 중간의 네 번째 시련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여인국의 여왕이 당승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당승이 시련에 처하지만, 당승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護法神인 위태존천이 등장하여 당승을 시련에서 구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왕과의 만남이란 시련을 당한 영웅인 당승은 앞에서 살펴본 시련들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였다.

그러면 캠벨의 영웅신화의 여정 단계 중 여러 가지 시련 극복을 핵심으로 하는 입문 부분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캠벨에 의하면, '어떤 사회에 속하는 사람이든지 고의적으로든 타의에 의해서든 자기 정신의 迷宮이라는 迷路에 내려가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 시베리아의 푸닥<sup>39)</sup>과 성산에 못지 않은 상징적인 것들(능히 여행자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에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신비주어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 淨化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즉 감각이 정화되고 스스로를 낮추어 모든 관심이 초월적인 것에 집중될 때인 것이다. 굳이 현대적인 의미의 어휘를 쓰자면 우리 개인이 가진 과거의 유아적 심상이 분리, 초월, 변화하는 과정인 것이다.'<sup>40)</sup> 여기에서 캠벨이 말한 것에 의한다면, 영웅이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 부딪치게 되는 시련은 결국은 초월적인 것에 집중하여 자기정화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 과거의 유아적 심상이 분리, 초월,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영웅은 이 과정에서 자기정신의 미궁이라는 미로에 내려가 시베리아의 푸닥과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하여 캠벨은 '신화적 영웅의 길은 부수적으로는 地上的일지 모르나, 근본적으로는 내적인 길이다. 즉 보이지 않는 저지선이 뚫리고, 오래 전에 잊혀졌던 힘이 다시 솟아 세계의 變容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심연으로 뚫린 길인 것이다.'<sup>41)</sup>라고

39) 바이칼 호수 근처 시베리아 삼림 지구에 사는 에벤키족의 언어로 장애물이라는 뜻. 푸닥거리는 푸닥을 없애는 巫儀.

40)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133쪽, 민음사, 1999.

말하였다. 캠벨의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잡극 「서유기」 중 취경단의 영웅이 서 천취경하는 도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도 결국은 세계의 변용에 기여하기 위한 내적인 자기정화 혹은 내면에 존재하는 佛性을 깨닫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겠다.

### 3) 귀환

#### (1) 귀환 관문의 통과, 혹은 일상 세계로의 복귀

캠벨의 영웅신화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귀환은 통과이레 중 통합이레와 비슷한 것으로, 영웅이 미지의 영역에서 온갖 시련을 극복하여 얻은 사회 재생의 靈藥을 가지고 기존의 현실 영역으로 귀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캠벨에 의하면, '신화의 영웅은 세계사적, 대우주적 승리를 거두는 게 보통이다. ..... 모험을 통하여 자가 속한 사회 전체의 소생에 필요한 수단을 가지고 돌아온다.'<sup>42)</sup> 그러면 잡극 「서유기」의 영웅인 당승이 천축국에서 사회 재생의 영약인 불경을 가지고 귀환하는 것을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부처가 등장): 玄奘아, 너는 지난 날에는 天竺의 羅漢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國師이구나. .... 내 제자 네 명, 곧 한 명은 成基, 한 명은 惠光, 한 명은 恩昉, 한 명은 敬測 이들 네 명이 너를 중국에까지 호송할 것이다. 중국에 도착하여 승려들이 受戒하는 壇을 개설하고, 佛法을 크게 일으키고는 이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正果를 이루어라. 給孤獨長者<sup>43)</sup>야, 그를 데리고가 佛經을 받고 급히 떠나도록 해라. ....

(여러 父老들이 등장): 三藏國師께서 西天에 가신지 17년이 되었는데, 소나무 가지가 오늘 동쪽으로 기울었구나! 저희들이 官府에 알리고, 모두 성 밖에서 맞이해야겠어요. (퇴장)

(父老가 여러 관리들과 등장):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오늘 소나무 가지가 동쪽으로 기울었으니, 國師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

41)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44쪽, 민음사, 1999.

42)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53쪽, 민음사, 1999.

43) 당시 인도의 부유한 상인으로 자비와 선을 베풀기를 좋아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祇園精舍라는 사찰을 지어주었다.

(고타마<sup>44</sup>)와 四大金剛<sup>45</sup>)이 등장): 저는 賢劫<sup>46</sup>) 네 번째 부처인 석가 모니입니다. 오늘 唐僧이 중국에서 說法을 시작하고 佛法을 밝히었습니다. 오늘 마땅히 이곳으로 돌아와 正果朝元<sup>47</sup>)해야 하니, 飛仙으로 하여금 그를 데리고 靈山會上<sup>48</sup>)에 오도록 해야지요. (깃발과 악기 아래 飛仙이 당승을 데리고 등장)

(飛仙): 당승이 오늘 功德과 修行을 원만히 성취하여 正果朝元하네요. 부처님께서 저더러 영산회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으니, 모름지기 같이 한 번 가야지요. ……

(당승이 부처를 알현하며): 부처님! 저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부처): 당승아! 내 말을 들어라. 수 년만에 이곳에 이르러 오늘 공덕과 수행이 원만히 성취되었으니 비로소 正果朝元한다.<sup>49</sup>)

위의 인용문은 잡극 『서유기』 제6본 제22척 ‘參佛取經’과 제23척 ‘送歸東土’ 및 제24척 ‘三藏朝元’에서, 주인공 당승이 서천취경의 목적을 성취하고 중국으로 귀환하고, 이후 다시 천축으로 돌아가 羅漢의 경지에 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극 중에서 당승은 부처 네 제자의 호송을 받으며 중국으로 귀환하여 佛法을 크게 일으킨다. 그런데 이때 당승이 장안성으로 귀환할 신기한 징조가 이미 발생하였다.

44) 고타마(Gotama)는 석가모니의 성이고 싯다르타(Siddhrtha)는 이름.

45) 四大天王이라고도 부르며 동서남북에서 佛法을 수호하는 守法神.

46) 겁(劫)이란 본래 천지가 한번 개벽한 후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매우 길고 오랜 시간을 이르는 불교 용어이다. 겁에는 과거겁(住劫)과 현재겁(賢劫), 미래겁(星宿劫)의 세 종류가 있다. 이 중 현겁은 현재의 겁으로 세상이 성(成)·주(住)·괴(壞)·공(空)의 4기를 일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47) 正果는 불교에서 수행 후 깨달음을 얻어 羅漢의 경지에 진입하는 것이고, 朝元은 도교에서 수련을 통하여 신선이 되는 것.

48) 靈鷲山에서 행해진 부처의 설법 모임.

49) (佛云)玄奘, 你往日是西天羅漢, 今爲東土國師. …… 我佛座下弟子四人, 一名成基, 一名惠光, 一名恩昉, 一名敬測. 基, 光, 昉, 測四人, 送你到于東土, 開闡戒壇, 大興妙法, 後回西天, 始成正果. 給孤長者, 引將他去. 着他領取經寶, 疾忙便行. …… (衆父老上, 云)三藏國師, 去西天十七年也, 松枝今日向東也. 俺報與官府, 都在城外接去來. (下)(父老引衆官上)(衆云)異哉! 異哉! 今日松枝已向東也, 國師必定歸也. …… (佛高舉, 四金剛上, 云)老僧賢劫第四尊, 釋迦牟尼是也. 今日唐僧東土開壇闡教, 今當西來正果朝元, 教飛仙引入靈山會上來者. (旌幡, 樂器, 飛仙引唐僧上)(飛仙云)唐僧今日功成行滿, 正果朝元, 佛祖着我引入靈山會, 須索同去走一遭也呵. …… (唐僧見佛科)告佛祖, 唐僧稽首. (佛云)唐僧聽我明言. 數年得到西天. 今日功成行滿, 方才正果朝元. 隨樹森編, 『元曲選外編』第2冊, 690-694쪽, 中華書局, 1987.

곧 서천취경을 위한 환송식에서 당승은 만일 소나무 가지가 평상시와는 달리 동쪽으로 기울면 자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당승은 중국에 귀환하여 佛法을 크게 선양한 후, 다시 飛仙과 함께 천축국의 영산회상으로 돌아갔으며, 마침내 부처 앞에서 공덕과 수행이 원만하게 성취되었음(‘功成行滿’)을 인정받고, 그 결과 ‘正果朝元’하게 되었다. 곧 당승은 극 중에서 사회 재생의 영약인 불경을 가져오는 공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시련을 통한 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에 있는 佛性を 깨달아 ‘正果朝元’함으로써, 속세의 欲界에서 淸淨한 神界로 향하는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당승의 모습은 캠벨의 영웅신화의 관점으로 보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캠벨에 의하면, ‘영웅이 고도로 갈망하는 신의 모습은 점점 커져, 이윽고 우주 전체에 가득 차게 된다. 영웅의 마음은 마침내 우주의 벽을 깨뜨리고 모든 형상(모든 상징, 모든 神性)의 경험을 초월하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변의 空에 대한 자각이다.’<sup>50)</sup> 다만 일반 凡夫들은 이러한 불변의 空에 대한 자각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캠벨은 ‘오로지 감각의 배타적 증거만 급급한 일반인에게 어떻게 저 만유의 근원인 ‘공(空)’을 설명한단 말인가?’<sup>51)</sup>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캠벨의 관점에 의하면, 잡극 「서유기」에서 영웅인 당승이 ‘正果朝元’하여 만유의 근원인 ‘空’을 깨달아, 세속의 欲界에서 청정하고 신성한 神界로 진입한 것은 생명 가치의 재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잡극 「서유기」는 영웅신화로서 再生神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두 세계의 스승

캠벨 영웅신화 중의 영웅은 사회재생의 영약을 획득하여 기존의 현실사회로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영웅은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는 이승과 저승 두 세계의 스승이 되어, 죽음으로써 재생하여 영원을 획득하기도 한다. 캠벨에 의하면,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하자면 시간을 초월한 세계인 저승과 일상

50)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249쪽, 민음사, 1999.

51)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282쪽, 민음사, 1999.

적인 세계인 이승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유(그것도 한 세계의 원리로 다른 세계를 오염시키지 않되, 한 세계의 선으로써 다른 세계의 존재를 깨우치면서)는 거장들의 재능에나 어울리는 자유다.<sup>52)</sup> 잡극 『서유기』에서 당승은 영웅적인 모습으로 온갖 시련을 극복하여 세계사적, 대우주적 승리를 거두어 중국으로 귀환한다. 그러나 그의 영웅적인 제자들인 손행자와 저팔계 및 사화상은 서천취경의 목적을 이루고 이율러 내면의 불성을 깨달았지만, 사회 재생을 위하여 중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天竺國에서 圓寂<sup>53)</sup>에 들어간다. 그러면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부처가 등장): ..... 손행자와 저팔계와 사화상 세 명은 人類가 아니라 다시 중국으로 귀환할 수 없으니, 먼저 세 명으로 하여금 正果<sup>54)</sup>를 얻도록 한다. ....

(사화상이 등장): 제가 사부님을 수 년 동안 따르다가 오늘 正果를 얻었습니다. ....

(손행자가 등장): 제가 功績과 德行을 이루어 오늘 사부님께 사직하고 圓寂에 듭니다. ....

(저팔계가 등장): 제가 사부님께 사직하고 朝天<sup>55)</sup>에 듭니다.<sup>56)</sup>

위의 인용문은 잡극 『서유기』 제6본 제22척 ‘參佛取經’중 당승의 제자인 손행자와 저팔계 및 사화상이 영웅적인 서천취경의 목적을 이루고 모두 正果를 획득한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극 중에서 이들 세 명의 영웅적인 제자들이 당승보다 먼저 正果를 획득한 것은 그들이 人類 곧 인간이 아니라 중국으로 귀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 세 명의 영웅적인 제자들은 우주의 진리와 내면의 佛性을 깨닫고 圓寂함으로써 신성하고 청정하며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였다.

그러면 이들 영웅적인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52)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297쪽, 민음사, 1999.

53) 모든 덕(諸德)이 圓滿하고, 모든 악(諸惡)이 寂滅한다는 뜻에서 圓寂이라 한다. 원래는 모든 無知와 私見을 버리고 깨달았다는 뜻이었지만, 그 뒤 스님의 죽음을 뜻하는 말로 변했다.

54) 불교에서 修行 후 깨달은 올바른 果報.

55) 도교에서 수련 후 신선의 경지에 진입하는 것을 말함.

56) (佛云) 孫, 豬, 沙弟子三個, 乃非人類, 不可再回東土, 先着三個正果, ..... (沙和尚云) 徒弟從師父數年, 今日我正果, ..... (行者云) 弟子功行也到, 今日辭了師父圓寂, ..... (豬八戒云) 弟子也辭師父, 朝天去也.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2冊, 690-691쪽, 中華書局, 1987.

가? 캠벨은 『聖經』의 마태복음 10장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곧 '예수는 똑같은 것을 훨씬 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이제 의미는 분명해진다. 말하자면 이것은 모든 종교적 관행이 좇고 있는 바이다. 심리적 훈련을 통하여 개인적인 한계, 독특한 습관, 희망, 공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는데 필수적인 자기 적멸에 대한 저항을 버리면, 개인은 위대한 하나됨, 즉 자기화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캠벨의 말에 의하면, 잡극 「서유기」에서 세 명의 영웅적인 제자들이 서천취경의 목적을 이루고 圓寂한 것은 죽음을 통하여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곧 再生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들 영웅적인 세 명의 제자들은 자기 적멸에 대한 저항을 버림으로써 자기화해에 이르러, 예수가 『聖經』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잡극 「서유기」는 캠벨의 영웅신화의 관점에 의하면 재생신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결론

잡극 「서유기」는 원말 명초 몽고족 극작가 楊景賢이 지은 6本 24齣의 장편 희곡으로, 당나라의 실존인물 玄奘의 영웅적인 서천취경을 제재로 한 것이다. 극 중에는 가공적이고 신화적인 현장의 출생담인 江流故事가 보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또한 취경단의 영웅적이고 신화적인 색채로 충만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잡극 「서유기」의 모습은 후세 소설 「서유기」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캠벨은 미국 태생의 세계적인 비교신화학자로서 동양과 서양의 신화와 전설을 비교·연구하였으며,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융의 심층심리학 이론을 계승하여 영웅신화의 일반적 양상을 체계화시켰다. 그에 의하면, 영웅신화는 통과의례의 확대판으로 출발과 입문 및 귀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여러 가지의 단계로 형성되어, 모두 17단계로 이루어진다.

캠벨에 의하면, 출발 부분에서 영웅은 일부가 소명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대부

분 모험에의 소명을 받으며 이후 초자연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잡극 「서유기」에서도 캠벨의 이와 같은 관점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다. 극 중의 주인공 당승은 운명적으로 소명을 받았으며, 이후 서천취경의 과정에서 수많은 神佛인 초자연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소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다만 당승의 영웅적인 제자인 손행자와 저팔계 및 사화상은 처음에는 모두 모험에의 소명을 거부하였지만 이후 모두 취경단에 합류하였다.

캠벨의 영웅신화 여정에 의하면 두 번째 부분인 입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듯, 잡극 「서유기」에서도 취경단이 온갖 시련을 겪어야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었다. 다만 잡극 「서유기」는 잡극 중 가장 장편의 희곡이지만, 소설 「서유기」의 81難과는 달리 일곱 개의 시련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강류고사의 시련 부분은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입문 부분에는 실제로 여섯 가지의 시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잡극 「서유기」 중 영웅이 겪어야 하는 시련은 비교적 쉬운 시련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어려워졌다. 이러한 과정 중에 취경단의 핵심 영웅인 당승은 요괴에게 두 번이나 납치당하는 재난을 당하였으며, 화염산에서는 손행자가 칠선공주의 부채 질에 허공에 날려버려지는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은 대부분 초자연적인 조력자인 神佛들의 도움에 의지하여 해결되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인 당승은 주로 시련의 당사자로 등장하는데, 특히 여인국에서는 여왕의 유혹으로 인하여 당승이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또 취경단이 천축국에 도착하여 佛國의 지혜로운 노파인 貧婆에게 『金剛經』 중 '點心'과 관련된 한 구절로 마지막으로 시련을 당하였는데, 이것은 앞의 시련과는 달리 내적인 시련이었다.

캠벨의 영웅신화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에서 살핀 영웅들의 시련들은 세계의 變容에 기여하기 위한 내적인 자기정화 혹은 내면에 존재하는 佛性を 깨닫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잡극 「서유기」의 서천취경 고사는 불경을 중국에 가져오는 소명을 달성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기 내면의 불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캠벨은 '신화적 영웅의 길은 부수적으로는 地上的일지 모르나, 근본적으로는 내적인 길이다'라고 하였다.

캠벨의 영웅신화 부분 중 귀환 부분은 영웅이 미지의 영역에서 획득한 사회재생의 영약을 기존의 일상세계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잡극 「서유기」에서는 먼저 천축국에서 당승의 영웅적 제자들인 손행자, 저팔계, 사화상이 모두 圓寂하는데,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거듭나는 再生神話의 의미를 지니었다. 또한 당승은 부처 제자들의 호송으로 중국에 귀환하여 佛法을 밝히고 선양한 후, 다시 飛仙과 함께 천축국의 영산회상으로 돌아가 佛法을 듣고 '正果朝元'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캠벨에 의하면, 감각의 베타적 증거에만 급급한 일반인들과는 달리 당승이 만유의 근원인 '空'을 깨달았으니, 이는 세속의 欲界에서 청정하고 신성한 神界로 들어가는 생명가치의 재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잡극 「서유기」는 전체적으로 재생신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김기홍, 「캠벨의 원질신화와 문화콘텐츠」, 『통일인문학』 66집, 2016.
- 안혜진, 「영웅신화 원형으로 본 「서유기」의 삼장법사: 영웅의 제자리 찾기」, 『비교문학』 69집, 2016.
-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 馬會, 「雜劇「西遊記」之英雄之旅」, 『赤峰學院學報』, 2014年 10期.
- 毛小雨, 「元雜劇中佛教戲研究」, 『戲曲研究』 第31輯, 文化藝術出版社, 1989.
- 楊毅,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楊軍, 「宋元時期三教合一'原因探析」, 『江西社會科學』, 2006.
- 朱莎, 「論元雜劇中佛教世俗化現象及原因」, 『襄攀學院學報』 第33卷 4期, 2012年.
- 嚴蘭紳 主編, 『元曲論集』, 河北出版社, 1993.
-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2冊, 中華書局, 1987.

〈Abstract〉

The Study on *Journey to the West* of Yuan Zaju  
- By the Point with the Heroic Mythology by Joseph Cambell

Kim, Kwang-Young

XuanZang who was monk of Tang dynasty was very famous person. At 7 century XuanZang went to the west to bring Buddihist scripture to the china. He went around over one hundred countries for seventeen years. His miraculous story carried down for long time. Yuan Zaju 『Journey to the West』 was created at these foundation.

Joseph Cambell(March 26, 1904 - October 30, 1987) was an American mythologist, writer, and lecturer, best known for his work in comparative mythology and comparative religion. His work covers many aspects of the human experience. Campbell's *magnum opus* is his book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1949), in which he discusses his theory of the journey of the archetypal hero found in world mythologies. Since the book's publication, Campbell's theory has been consciously applied by a wide variety of modern writers and artists.

In the heroic mythology by Joseph Cambell the first stage is departure. In the *Journey to the West* of Yuan Zaju the main character Tang Seng went to a royal summons. But his three disciples Sun Wukong, Zhu Bajie and Sha heshang at first refuse royal summons. On their ordeal itinerary they depend on assistance of supernatural helper.

At Second stage they went through many ordeals. On their ordeal itinerary they depend on assistance of supernatural helper. Third stage is return. Return of hero means rebirth of life. In this respect *Journey to the West* of Yuan Zaju has color of mythology of rebirth.

76 中國文化研究 第40輯

Key words: *Journey to the West*, Joseph Cambell, Heroic Mythology, Departure, Introduction, Return, Hero, Mythology of Rebirth

이 논문은 2018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8년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5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